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
종게
더 가까이

한살림

한살림

사람과 자연

한살림은 1986년 출범 당시 줄곧 자원 개발과 경제 성장에 집착하는 산업주의 세계관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과 함께 유기농 쌀과 유정란 등 건강한 먹을거리들을 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직거래 운동을 벌여 돈과 상품만 오가는 차가운 시장의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직거래운동과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핵 위협과 에너지 고갈, 농업과 식량위기 등 문명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생활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 찍은 '벼' 손도장

사람과 사람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 가장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입니다. 한살림은 설립한 지 일 년 남짓 지난 1988년 4월, 생활협동조합으로 조직 틀을 꾸리고 유기농업 자체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던 그 시절부터 생명이 살아있는 농업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족 같은 정을 나누며 생산지를 방문하고 일손 돕기를 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왔습니다. 한살림이 시작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러한 교류 협력은 우리나라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차례

여는 글	04	2014년 사업·활동 보고서를 펴내며
현황	06	함께 살림
활동	08	2014 한살림 주요활동
안성물류센터	10	한살림을 더 큰 그릇에 담습니다
물품취급기준	12	내 몸과 지구에 이로운 물품만 취급합니다
농업살림	14	식량자립과 농업기반 확대
	16	생명이 살아있는 농업
	18	쌀과 잡곡
	20	과일 채소
축산	22	생명이 살아있는 축산
기후변화대응	24	지구를 생각하는 뜻 깊은 실천
마을·공동체	26	도시와 농촌이 한살림 한마음
생산관리	28	자주관리 자주점검 자주인증
소통과 연대	30	소식지
	32	온라인 홍보
	33	식생활교육센터
	34	언론에 비친 한살림
	36	출판 간행물
	38	국내외 연대
발자취	40	한살림이 걸어온 길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한살림 2014 사업·활동 보고

발행일 2015년 3월 30일
발행인 곽금순
발행처 한살림연합 www.hansalim.or.kr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 4층
연락처 1661-0800 / 02-6715-0800

한살림 2014 사업·활동보고는
지구환경을 생각해 형광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재생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구에 참 미안합니다.

50만세대 조합원 시대
희망과 대안의 한살림운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활동 보고서를 펴내며

1986년 12월 4일, 작은 쌀가게로 출발한 한살림은 줄곧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도 매일 소비자 조합원이 191가구씩 늘어났으며 12월말 기준 약 48만 세대, 2015년 3월에는 50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전체 세대의 2.42% 이상이 한살림 가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민 생산자는 2110여 세대, 물품 공급액은 3천5백억 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1988년 처음으로 생활협동조합을 등록할때 조합원 70세대 남짓이던 것을 생각하면 한살림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안성물류센터가 첨단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자원재생형 되살림시설로 준공되어 앞으로 10년 동안 늘어날 물동량도 무리 없이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소가 본격 가동 되면서 기왕에 벌여오던 가까운먹을거리운동, 병재사용운동 등과 함께 한살림이 줄인 온실가스의 양은 더욱 늘었습니다.

우리보리살림사료와 보리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발아보리가공공장이 준공되었고, 토박이씨앗살림운동도 새로 브랜드를 설정하고 더욱 노력하며 식량자급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가족이 되어 펼치고 있는 한살림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도 이어져 지난 9월에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으로부터 OWA(One World Award 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살림의 빠른 성장을 자랑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살림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조합원 생산자들이 늘어나고 사업과 활동도 왕성하게 펼쳐왔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전 지구적인 식량위기, 더욱 위태로워진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파괴와 생태계의 위기를 떠올리면 여전히 한살림이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특히, 2014년에는 뼈에 새겨두고 기억해야 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여전히 의혹 투성이지만, 돈과 물질의 풍요를 향해 맹목으로 달려온 황폐한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침몰했다는 점은 이미 명백합니다.

한살림 50만 조합원이 우리 사회와 함께 성찰하고, 더 많은 이웃들과 만나고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살림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우리사회의 대안과 희망을 넓히기 위해 다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곽 금 순

함께 살림

2014년 하루 평균 **191** 가구가 한살림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2012~2014 생산농가 **2.9%** 증가

2012~2014 연평균 조합원 **17.8%** 증가

2012~2014 생산면적 **7.6%** 씩 꾸준히 증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명세상

2014년 한살림 48만 세대 조합원이 함께 나눈 생명의 먹을거리 공급액은 3,490억 원, 출자금 467억 원입니다.
생산농가는 2,111세대, 농지면적 4,155만3,000㎡(약 1,257만 평)이며 2013년에 비해 생산농가 63세대,
농지 306만9,000㎡(93만 평)가 늘어났습니다.
한살림 가까운먹을거리를 이용함으로써 줄인 온실가스는 1,466톤이며 이는 소나무 29만 3,20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고
우리보리살림사료 등 국산사료자급률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수입곡물사료 1,844톤을 줄였으며
이는 농지 290만4,000㎡(88만 평) 넓이에서 재배된 곡물수입을 줄인 효과가 있습니다.

조합원
48 만 세대

전국세대의 **2.32%**

물품공급액
3,490 억 원

회원 생협 **21** 개

매장 **186** 개

출자금 **467** 억 원

가공생산자 **147** 개 산지 **2,745**명

농민생산자 공동체 **103** 개

생산농가 **2,111** 호

생산면적 **1,257** 만 평

농업생산금액 **780** 억 원

이웃과 함께

인도 달리트 공동체 유기농업 지원

2,000 만 원 (국제유기농업상 상금 등)

행복기금 적립

4천 **511** 만 원

한살림에서는 물살림 세안제와 자연팩,
알로에자연화장수 등의 판매금액 2%를 '행복기금'으로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

병 재사용 161,881병

온실가스 **48.5**만 톤 감축
소나무 **9,700** 그루 심은 효과

가까운먹을거리운동

온실가스 **1,466**만 톤 감축
소나무 **29**만 **3,200** 그루 심은 효과

2014년 2월 햇빛발전이 본격 가동되면서
온실가스 263톤 감축, 소나무 52,600그루를
심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식량자급력 제고

국산사료자급운동

수입곡물사료 **1,844** 톤 감축
해외농지 **290**만 **4,000**㎡ (**88**만 평)
넓이에서 재배된 곡물수입 감축효과

생산안정기금

조성 **6**억 **9,192**만 원
집행 **9**천 **944**만 원

가격안정기금

조성 **6**억 **9,192**만 원
집행 **3**억 **2,858**만 원

일자리·조직

상시일자리 **5,075** 명 1차 생산자 제외
마을모임 **357** 개
소모임 **336** 개

생산자 소비자 한마음으로 농업을 지켜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세상을 위해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생산안정기금'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운용해 생산재해나
시장가격 불안정에 따른 손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책임생산·책임소비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4

한 해 생명살림 **참여한 가족 48만,** 함께 나눈 생명의 먹을거리 **3,500억원 달성**

쌀 관세화 반대 한살림 캠페인

21개 회원생협, 조합원들과 함께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맞서 '우리 쌀 지키기' 를 위해 조합원 5000인 선언 신문 전면광고, 쌀 관세화 반대 집회와 퍼포먼스, '쌀은 생명 아이들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쌀 지키기 연중 캠페인, 다양한 쌀 소비촉진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다음세대가 살아갈 이 땅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살림의 입장과 의지를 대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 수상

생산자와 소비자의 돈독한 관계, 미래세대 위한 기여, 일관된 원칙 유지, 유기농업 확산 및 발전,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헌, 환경보호, 경제적 영향, 사회적 기여,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 제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9월 19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으로부터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습니다.

식생활교육센터 3년 연속 식생활교육 우수기관 선정

한살림다운 대안 식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의 회원생협과 함께 연 451회 8,675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해 8개 지역 184명이 수료하였고, 한살림식생활교육활동 한마당 개최, 위탁 교육과정, 어린이친환경요리교육 지도자 과정, 연구강사 코칭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소 본격 가동 및 신재생공급인증서 REC 입찰 낙찰

핵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501.3kWh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본격 가동 중인 한살림햇빛발전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인증서인 REC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어 향후 12년 동안 안정적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사용병 세척시설 본격 가동

안성물류센터 준공과 함께 재사용병 세척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 하루 9,600병 정도 재사용병 세척이 가능해졌고, 2월부터 병 1개당 50원씩 적립금으로 돌려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병 재사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병회수율 14%, 병 재사용에 따른 CO2 48.5톤 감축과 소나무 9,700그루 식재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한살림 안성물류센터 준공

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19,040㎡, 건축면적 5,146㎡로 2014년 2월 준공된 안성물류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 매장과 주문공급을 두 개의 라인으로 분리해 포장단위 특성에 맞게 물품을 따로 개발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사용병 세척시설, 포장재 재사용 위한 압축시설, 채소류 소포장 등 유통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퇴비화시설 등도 함께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살림 소식지 개·증편 및 포장매뉴얼 적용 확대로 통합이미지 구축

기존 한살림 소식지와 물품지를 2014년 6월(504호)부터 통합 개·증편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격주마다 월 2회 28면으로 발행하고, 포장디자인 321건 개발, 160개 포장 DB화, 한살림 가치를 담은 서브 브랜드(바로구운우리밀빵, 신선육, 토박이씨앗살림) 개발, 포장디자인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을 통해 브랜드 통합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토박이씨앗살림 품목 및 재배면적 확대

토박이씨앗살림 생산기반 확대와 전통적인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종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파, 고추, 가지, 오이, 옥수수, 앉은뱅이밀 등의 토박이씨앗살림 물품 재배면적을 기존 146,300평에서 약 17% 늘어난 15,300평으로 재배를 확대하였고, 토박이씨앗살림 품목 8가지를 신규물품으로 취급해 2014년 토박이씨앗살림 물품의 공급량은 408,835kg, 공급금액은 4,580,747,200원으로 앞으로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채종량과 재배면적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발아보리가공공장 준공

국산보리를 지키기 위해 축산가공생산자, 축산농가, 전북지역 보리생산자들과 함께 설립한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발아보리가공공장이 1,488㎡(약 400평) 규모로 준공되어 우리보리살림사료 등 보리가공품 생산을 안정화 해 2020년까지 보리생산농지 201만평을 살리고, 연간 3,000톤의 국산보리 수매를 더욱 확대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살림 안내자 과정 등 마음살림 프로그램 본격 진행

'마음살림운동'을 본격적으로 기획 진행할 한살림연수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마음살림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창립

무소포제, 천연응고제 사용으로 품질 향상과 콩 가격인하 적용, 회원생협의 두부 이용촉진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두부 공급량이 전년대비 33.8% 증가한 가운데 한살림은 안성지역 6개 농협과 함께 12월에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을 설립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공장이 준공되면 국산콩을 원료로 두부 등 생산소비를 더욱 늘려 식량자급기반이 확대됩니다.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 설립 협약 체결

2014년 9월 한경대학교와 농축산물 분석연구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산학 협약을 체결하고 잔류농약 320성분 분석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갖춰 2015년 3월 3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한살림만의 독자적인 안전성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물품안전 및 품질 강화로 한살림물품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뜻깊은 되살림터
한살림 안성물류센터

부지면적 27,730㎡(약 9,000평)
1차 준공(2014년 2월 28일)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9,040㎡
입면적 5,146㎡

옥상 햇빛발전소
지상 4층 한살림우리밀제과
지상 3층 재사용병 세척장, 한살림우리밀제과
지상 2층 물류센터 사무실, 회의실, 식당, 휴게실
지상 1층 상온·냉장 DPS(집품)작업장, 소포장 작업장, 냉장실, 박스 등 포장재 재사용 압축시설
지하 1층 냉동 입고장·작업장·출고장, DAS(매장별 분류)작업장, 출고대기
한살림식품공장 및 부대시설 예정지 음식물부산물 등 되살림 처리시설

생산자와 소비자를 더 가까이

첨단 물류시스템 합리화로 물류효율성 증대와 인력 안정화 돌입

첨단 디지털 집품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과 분배시스템(DAS, Digital Assorting System)을 갖추고, 매장공급과 주문공급을 따로 분리해 각각의 특성에 따라 포장 단위가 다른 물품을 개발하고 취급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선된 소분작업과 집품 정확도 향상으로 회원생협 물류만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류시스템 합리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증대와 현장인력 안정화 기틀이 다져졌고, 5~6년 후 2차 증축공사까지 하면 2024년까지 늘어나는 물동량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장공급과 주문공급을 두 개의 라인으로 분리

기존 물류센터는 공간 부족 때문에 '매장공급', '주문공급' 구분 없이 한 라인에서 물품을 처리해왔으나 안성물류센터에서는 두 라인을 구분해 각각 처리합니다. 매장공급과 주문공급을 구분함으로써 포장 단위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물품을 따로 개발해 조합원들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우리밀제과 우리밀 살리기와 자급률 확대

안성물류센터 내 3, 4층에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본격 가동 중인 한살림우리밀제과가 국내산 재료들과 첨가물이 거의 없는 건강한 빵, 과자류와 함께 즉석빵 사업 확대, 성형·반제품 생지 개발, 포장지 개선·개발, 천연발효종·곡물·과실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로 우리밀 살리기와 조합원 이용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뜻깊은 되살림터

한살림햇빛발전소 본격 가동

안성물류센터 지붕 5,200㎡에 햇빛발전소가 설치돼 440kwh 용량의 태양광 발전이 시작됩니다. 핵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한살림의 실천이 본격화 됩니다.

재사용병 세척시설 일평균 1,800병 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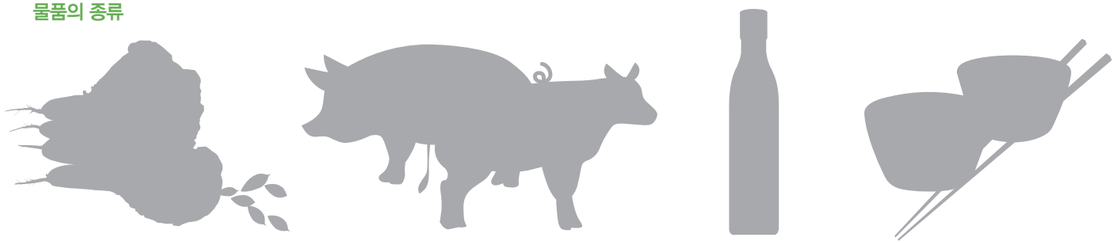
일 최대 9,600병 정도 세척이 가능한 재사용병 세척시설이 본격 가동되고, 2014년 2월 1일부터 병 1개당 50원씩 적립금으로 돌려드리는 제도 시행과 '병 재사용 연간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여 14%에 불과한 병회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품 포장 박스와 음식물 부산물 등 친환경 되살림 처리시설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파생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 순환시킬 수 있도록 채소류 등을 소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유기농 퇴비화시키는 음식물퇴비화기, 폐지압축기와 폐지컨베이어를 가동중이며 국내외 방문객 1,246명이 자원순환 시스템을 도입한 되살림터로서의 물류센터를 견학했습니다.

내 몸과 지구에 이로운
물품만 취급합니다

물품의 종류



농산물
주잡곡
채소
과실
견과류

축·수산물
축산
육가공품
유제품
수산물
건어물
수산가공품

가공식품
김치류
반찬류, 양념
빵, 떡, 과자
식사 대용
건강식품 등
음료, 차
각종 가공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각종 세제류
도서
천연염색
옹기, 무쇠, 옻칠제품
천연벽지

이렇게 깐깐하게 따집니다.

- 고갈돼 가는 화석연료에 기대고,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수입 먹을거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제철 먹을거리를 고집합니다. 생육초기(육묘기간), 이상한파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가온 재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농약과 화학비료, 성장조정제(성장호르몬) 사용을 금합니다.(과수 일부 품목의 경우 저농약 재배)
- 시장 개방으로 존립이 위태로운 이 땅의 식량자원을 지키기 위해 잡곡류 등은 유기농만이 아니라 국내산도 취급합니다.
- 가공식품은 국내산이면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재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을 우선합니다.
- 생산협동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 출하하는 물품을 우선합니다.
- 효율성만 따지는 비유기적인 생산보다는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지향하는 물품을 우선합니다.
- 항생물질 등을 사용해 인공양식한 어패류, 수입산 수산물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내산 원칙에서 명태류 예외)
- 항생제, 성장촉진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축산물(유정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을 취급합니다.

방사성물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방사성물질에 대해 엄격한 자주 기준치를 설정하고 매달 국가공인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살림 등 생협, 시민사회단체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정밀 방사성물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014년 479개 물품에 대한 방사성물질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준치 이하 검출결과까지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자주기준치는 세슘134(Cs-134)와 세슘137(Cs-137)에 대해 성인(청소년 포함) 8 Bq/kg, 영·유아 4 Bq/kg 입니다. 이는 독일 방사선방호협회(GSPR)의 기준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국가기준은 100 Bq/kg입니다.

유기농 넘어! 지구를 살리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 도시 소비자들과 함께 자급사료로 소를 키우고 소똥으로
  논밭을 기름지게 하는 지역생태순환농업을 시작했습니다.
- 토박이씨앗살림을 통해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퍼트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살아 있는 화석, 투구새우가 뛰노는 논생물다양성 농법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비닐 덮개를 하지 않는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 제철꾸러미 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철꾸러미란?
마을 단위 농민 생산자들과 약속하고 연간 구입대금을 지불하면
매주 또는 정해진 날짜, 요일마다 제철 농산물, 찬거리 등을 꾸러미로
보내주는 제도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 본격 가동 (2015년 3월)

2015년 3월 국립한경대학교 교내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살림만의 독자적인 안전성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잔류농약 320성분 분석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가 가능해져 소비자조합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한살림물품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식량자립과
농업기반 확대

한살림은
쌀 관세화와 GMO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책임지고,
우리 쌀과 토종종자, 국내 친환경
유기농식품을 지키기 위해 농업살림 운동과
토박이씨앗살림운동을 통해
식량자급력 향상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은 생명 아이들의 미래

한살림은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우리 농산물로 차릴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사람,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쌀 관세화로부터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우리 쌀 지키기' 운동과 책임 있는 소비를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우리 쌀과 농업을 지키는 일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한살림의 생각입니다.

우리밀과 한살림우리밀제과

1984년, 정부가 밀 수매제도를 폐지한 뒤 우리 밀은 멸종 위기에까지 내몰렸습니다. 한살림은 1988년부터 우리밀살리기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이 사회운동으로 번져 가까스로 2010년에야 겨우 자급률 1%에 도달했습니다. 자급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밀농사를 이어가게 되었고, 한살림우리밀제과에서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빵과 라면, 국수 등의 우리밀 가공품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리와 발아보리가공공장

2012년 보리에 대한 수매제도마저 폐지됨에 따라 한살림은 우선 사료용 수입옥수수를 발아보리로 대체해 보리재배면적을 확보하고 보리농가가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보리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살림 '우리보리살림돼지'가 등장했고, 보리가공식품을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2014년에만 보리재배면적 100만 평을 확대했고 2020년까지 300만 평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토박이씨앗살림과 Non-GMO

국내 종자회사 대부분이 외국 거대곡물기업들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한살림은 토박이씨앗을 살리기 위해 토종농산물 품목과 재배면적을 늘려가며 채종포를 마련하고 종자은행 준비와 종자자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GMO반대 운동을 지속하며 국내 유전자조작작물 현황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정부에 대해 유전자조작작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콩과 한살림안성마춤식품

국산콩 소비 확대와 지역 생산농가 소득 증대, 지역농업살림을 위해 한살림과 안성시, 안성지역 6개 농협이 힘을 모아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을 설립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두부 등의 콩 가공식품을 생산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2015년 250톤에서 시작해 사업이 안정화 궤도에 오르는 2018년에는 500톤까지 콩 수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농업

2014년 **48** 만 한살림 가족이 힘 모아

생명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63**세대 ↑

농지 **306**만 **9**천㎡ (93만 평) ↑

한살림 농산물 생산액 **83** 억 원 ↑

토박이씨앗살림

토박이씨앗살림?
외래자본이 소유한 종자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땅에 뿌리박은 작물의 씨앗을 되거두어 재배를 이어감으로써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높여가는 한살림물품입니다.

49만 **8,300**㎡(15만1천평)에서
44만kg을 생산해
45억 **3,627**만 원 공급

품명	공급량(kg)	품명	공급량(kg)
가지	2,800	생강(재래종)	17,000
머위	7,950	선비콩	1,542
모싯대나물	792	세발나물	14,838
상추	3,942	순무	4,122
솔부추	6,606	쑥	11,374
앉은뱅이밀	2,603	쑥부쟁이	232
찰옥수수	1,811	아욱	32,103
풋콩모음	361	아주까리나물	311
곰취	4,224	연근	105,345
게걸무	704	유채나물	2,468
냉이	11,151	조선오이	2,448
노각오이	6,814	중파(재래종)	5,325
더덕	6,110	울금	6,195
돌나물	10,936	수세미	400
마	4,580	토란	7,050
마늘(한지형)	103,000	풋고추	7,203
미나리	30,372	황기	1,426
민들레잎	145	황태콩	189
비름나물	15,925	소 계	440,397

생산농가수(호)

1,992	2012	
2,048	2013	연평균 증가율(%)
2,111	2014	2.9 ↑

생산면적

3,174만 6천㎡ (1,086만평)	2012	
3,841만 2천㎡ (1,164만평)	2013	연평균 증가율(%)
4,148만 1천㎡ (1,257만평)	2014	7.6 ↑

공급액(백만 원)

59,581	2012	
69,642	2013	연평균 증가율(%)
77,987	2014	14.4 ↑

농가당수취액(천 원)

29,910	2012	
34,005	2013	연평균 증가율(%)
36,943	2014	11.2 ↑

쌀

생산농가 **1,049** 세대
재배면적 **1,212** 만㎡ (367만 평)
생산량 **479** 만kg
공급액 **190** 억원

쌀과 잡곡은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그나마 쌀을 거의 자급해온 덕에 우리나라는 2013년말 기준
곡물자급률 23.1% 나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면적이 줄어들면서
쌀 자급률 역시 85%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살림쌀 1말을 먹으면 생명이 살아있는
논 6평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논은 식량 안보의 기반일 뿐 아니라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수질정화 기능과 함께 300종이 넘는
수서생물의 서식처로 우리 생명과 밥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쌀

공급량(kg)

3,982,720	2012	
4,415,916	2013	연평균 증가율(%)
4,788,284	2014	9.7

생산 면적

1,008만 9,163㎡ (305만7,322평)	2012	
1,119만 8,751㎡ (339만3,561 평)	2013	연평균 증가율(%)
1,212만 2,131㎡ (367만3,373평)	2014	9.6

잡곡

생산농가 **2,103** 세대
재배면적 **1,666** 만㎡ (505만 평)
생산량 **303** 만kg
공급액 **157** 억원

한살림은 값싼 외국 농산물에 밀려
우리 땅에서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잡곡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산 잡곡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많은 잡곡을 무농약 재배나 그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재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잡곡

공급량(kg)

2,402,507	2012	
2,760,474	2013	연평균 증가율(%)
3,029,813	2014	12.3

생산 면적

1,321만 3,787㎡ (400만4,178평)	2012	
1,518만 2,607㎡ (460만790평)	2013	연평균 증가율(%)
1,666만 3,970㎡ (504만9,688평)	2014	12.3

과일

생산농가 **516** 세대 재배면적 **510** 만㎡ (154만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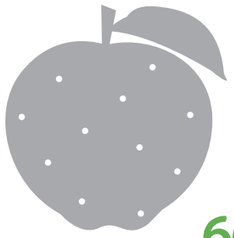
공급액 **240** 억 원

햇살과 바람, 정직한 땀의 결실 한살림 과일은
가온재배를 하지 않고 제철에 수확하여 공급합니다.
병충해가 많아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일에 대해
한살림 생산자들은 국제적으로 유기재배에 허용된
석회보르도액과 석회유황합제, 기계유제 정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성장촉진제나 지베렐린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재배나 그보다 엄격한 기준의
재배(일부 품목 저농약)를 실현했습니다.
2014년 과일소비가 저조했습니다.
FTA 영향으로 수입과일이 증가하였고, 소비패턴이 변화해
소비량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과

공급량(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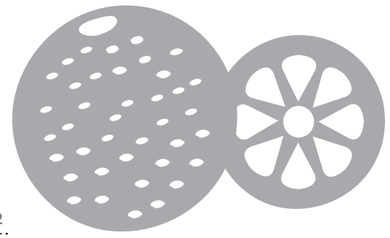
1,225,850	2012	
1,475,200	2013	연평균 증가율(%)
1,588,764	2014	13.8



배

공급량(kg)

483,200	2012	
529,600	2013	연평균 증가율(%)
662,584	2014	17.1



감귤

노지 공급량(kg)

762,700	2012	
938,400	2013	연평균 증가율(%)
804,690	2014	2.7

전년대비(%) -14.24

포도

노지 공급량(kg)

407,700	2012	
452,300	2013	연평균 증가율(%)
418,011	201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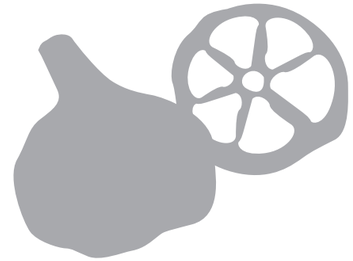
전년대비(%) -7.58

* 노지재배가 하우스 재배 등으로 전환된 추이 반영

채소

생산농가 **1,113** 세대 재배면적 **611** 만㎡ (185만 평)

공급액 **542** 억 원



마늘

공급량(kg)

230,500	2012	
235,068	2013	연평균 증가율(%)
230,571	2014	0.02

전년대비(%) -1.91

건고추

(고춧가루포함) 공급량(kg)

74,020	2012	
105,840	2013	연평균 증가율(%)
87,600	2014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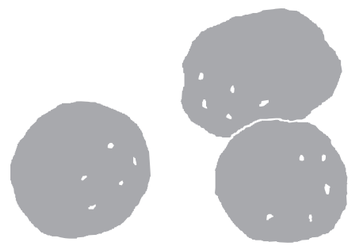
전년대비(%) -17.23

한살림 채소는
인증기준에 관계 없이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성장촉진제, 수정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재배하고
완전히 익은 다음 수확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또한 계획 생산하여 재배하므로 시장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공급가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감자

공급량(kg)

1,468,706	2012	
2,079,725	2013	연평균 증가율(%)
2,204,483	2014	22.5



생명이 살아있는 **축산**

국산사료 자급화 노력으로 수입 곡물사료 **1,844**톤 감축

해외의존농지 **290**만㎡(약 88만 평)감축

동물복지를 생각한 축사, 항생제 없는 사료
국산 사료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류 소비가 늘면서 수입곡물의 절반 이상이 고기생산을 위한 사료로 쓰이고 이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소비자들과 함께 고기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밥상을 차리자는 생각을 확산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축산사료에서
수입곡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괴산지역 축산 생산자공동체 한축회에서는 볏짚 등 농사 부산물과
국내산 원료를 섞은 TMR(완전혼합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세웠으며, 아산지역 유기한우작목회에서는
유기부산물(청치, 싸래기쌀,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을 섞은 TMF(완전혼합발효사료)를 먹여 소를 키우고,
제주지역 생산자들은 한살림성남용인 소비자 등과 협력해 국산사료 한우입식운동을 벌여
2014년 설에 처음으로 국산사료한우고기를 송아지입식자금을 보내준 소비자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보리살림사료는 한살림의 국산 사료곡물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보리에 대한 수매제도를
포기하면서 과거 1980년대 국산밀의 사례처럼 보리농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한살림은
당장은 소비가 적지만 언제든 식량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리재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발아보리를
수입옥수수 대신 넣은 우리보리살림사료로 키운 우리보리살림돼지를 2013년부터 출하해 첫 해에 33만 평의 보리농지를
확보했으며 닭과 소에 대해서도 시험 사육을 거쳐 우리보리살림사료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약 330만㎡(100만 평)의 보리밭을 지켜낼 전망입니다.

우리보리살림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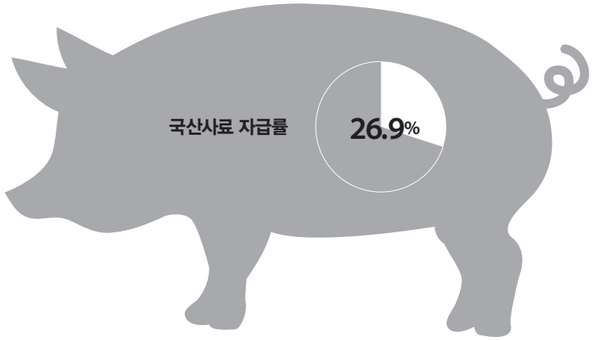
7,790두 (458,831kg) 2013
11,734두(691,133kg) 2014

연평균 증가율(%) **50.6**

일반돼지

13,600두 (722,160kg) 2012
7,350두(432,915kg) 2013
5,869두(345,684kg) 2014

연평균 증가율(%) **-34.3**



한우

1,305두 (292,246kg) 2012
1,435두 (430,070kg) 2013
1,478두(442,957kg)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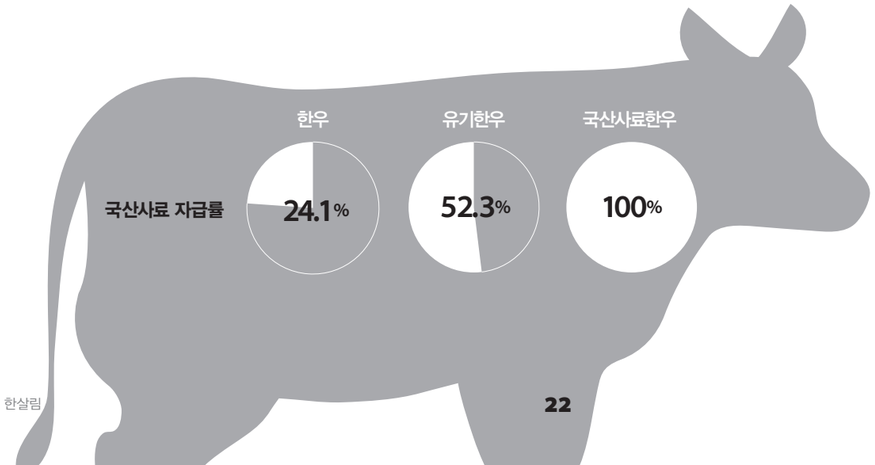
연평균 증가율(%) **6.4**

유기한우

244두 (71,736kg) 2012
296두(86,817kg) 2013
273두(80,071kg) 2014

연평균 증가율(%) **5.8**

전년대비(%) **-7.82**



수입 곡물사료 감축(톤)
1,844
해외의존농지 감축(㎡)
290

우리보리농지
198만㎡
(60만평)
증가

육계

667,577수 (934,608kg) 2012
755,355수(1,057,497kg) 2013
741,794수(1,038,512kg)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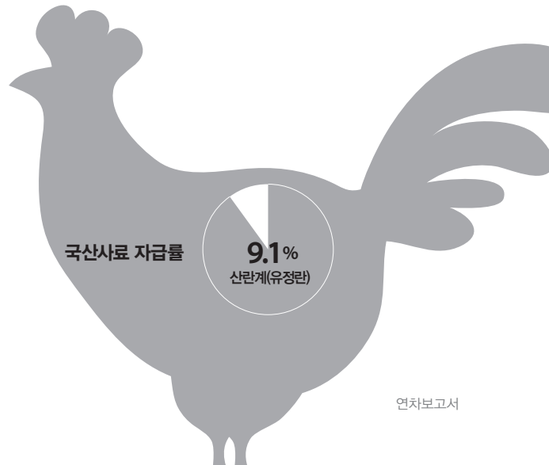
연평균 증가율(%) **5.4**

전년대비(%) **-1.8**

유정란

978,956판 (29,368,680알) 2012
1,142,932판(34,287,960알) 2013
1,262,076판(37,862,280알) 2014

연평균 증가율(%) **13.5**



지구를 생각하는 뜻깊은 실천

가까운먹을거리 1,466 톤

병재사용 48.5 톤

연간 12만kw 생산 햇빛발전 263 톤

온실가스 1,775.5 톤

한살림은 핵발전에 반대하며 자연에너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발전소가 2014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매일 온실가스 0.72톤, 연간 263톤을 감축시켜
연간 소나무 4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햇빛발전, 가까운먹을거리운동, 병재사용운동을 통해
모두 177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35만5천5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해 한살림이 한 해

CO_2 ↓ 1,775.5톤

소나무 35만 5,500그루 심은 효과

햇빛발전

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안성물류센터, 대전물류센터, 횡성산골농장 지붕)

약 6,351m^2에 햇빛발전소 건립

온실가스(CO_2) 263 톤 감축 ↓ 소나무 5만2,600그루 심은 효과

가까운먹을거리

2014년 한 해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CO_2)

1,466 톤 감축 ↓ 소나무 29만3,200그루 심은 효과

재사용병

2014년 한 해
병재사용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CO_2)

48.5 톤 감축 ↓ 소나무 9,700그루 심은 효과

도시와 농촌이 한살림 한마음

2014년 생산지 견학과 체험활동, 일손 돕기, 생산자와 소비자 간담회, 매장체험 행사 등의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이 전국 21개 회원생협에서 총 726회에 걸쳐 열렸고 11,23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습니다.
생산자의 땀방울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은 소비자는 이미 생명농사를 함께 짓는 사람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의 생명농사는 361개 마을모임과 327개 소모임을 통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동네 사람들끼리 한살림의 가치를 나누는 마을모임에는 모두 8,535명이 참여했고,
8,386명의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 소모임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짓는 생명농업은 한살림 생산안정기금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급마진율(GPR)의 0.2%의 금액을 생산안정기금으로 조성하고
생산자들도 그만큼의 기금을 함께 모아 생산재해로 평년작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 만큼의
손실을 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생산안정기금 6억9,192만8,000원을 조성하고,
자연재해를 입은 생산자들께 9,9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을모임

357 수
8,723 참가인원

소모임

336 수
8,720 참가인원

도농교류

726 회
11,230 참가인원

생산안정기금

조성액(천 원)		집행액(천 원)	
857,584	2012	117,120	2012
1,219,551	2013	341,093	2013
691,928	2014	99,440	2014

가격안정기금

조성액(천 원)		집행액(천 원)	
691,928	2014	328,586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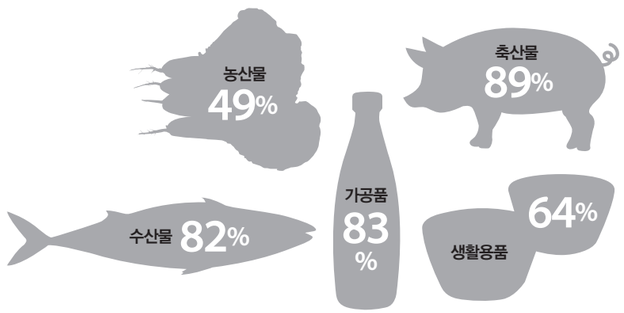
자주**관리**
자주**점검**
자주**인증**

한살림의 정책과 사업방향뿐만 아니라 한살림이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기준도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듭니다. 소비자들이 생산지를 방문해 생산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해온 도농교류가 한살림 물품에 대한 믿음을 쌓아왔습니다.
2014년 전체 생산자 가운데 생산자 자주관리 점검표를 제출한
비율은 농산물 49%, 가공품 83%, 축산물 89%, 수산물 82%, 생활용품 64%에 이릅니다.
조합원들의 자주점검은 11개 회원생협에서 35개 자주점검활동팀이 생산지 자주점검활동을 가졌습니다.
엄격한 한살림의 저농약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과실류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한살림자주인증심사에는 22개 지역(13개 공동체)에서 60명중에 56명의 생산자가 심사를 거쳐
자주인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살림은 방사성물질에 대한 자주기준치로 성인과 청소년 8Bq/kg 영유아 4Bq/kg를 설정해
매월 주요 물품에 대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의뢰해 정밀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기준량에 미달한 경우라도 검출여부와 검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479개 시료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가인증은 기본,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음으로 함께 관리합니다

2014 생산자 자주관리



2014 소비자 자주점검

11개 회원 생협에서
35개 자주점검활동팀 활동

2014 한살림자주인증

22개 (13개 공동체)에서
60명 중에 **56**명에게
자주인증

한살림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치

성인과 청소년 **8**Bq/kg, 영유아 **4**Bq/kg
국가기준치 100Bq/kg
2014년 방사성물질 검사 총 **479**개 시료 검사

물품상담

물품정보 전산화로 상담그룹 편의성 향상과
8,382건의 물품상담 지원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한살림 소식지**

24절기 즈음마다 생명이 가득 숨쉬는 한살림 생산지와 조합원 활동 소식으로 격주마다 발행되던 기존 소식지와 물품지가 2014년 6월(504호)부터 통합 개·증편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더 가깝게 이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보다 다양한 물품 정보와 소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28면으로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연합소식지 **32**호 2014.1

물품안내지 **495**호 2014.1

연합소식지 **33**호 2014.2

물품안내지 **497**호 2014.2

연합소식지 **34**호 2014.3

물품안내지 **499**호 2014.3

연합소식지 **35**호 2014.4

물품안내지 **501**호 2014.4

연합소식지 **36**호 2014.5

물품안내지 **503**호 2014.5

연합소식지 **504**호 2014.6

연합소식지 **505**호 2014.6

연합소식지 **506**호 2014.7

연합소식지 **507**호 2014.7

연합소식지 **508**호 2014.8

연합소식지 **509**호 2014.8

연합소식지 **510**호 2014.9

연합소식지 **511**호 2014.9

연합소식지 **512**호 2014.10

연합소식지 **513**호 2014.10

연합소식지 **514**호 2014.11

연합소식지 **515**호 2014.11

연합소식지 **516**호 2014.12

연합소식지 **517**호 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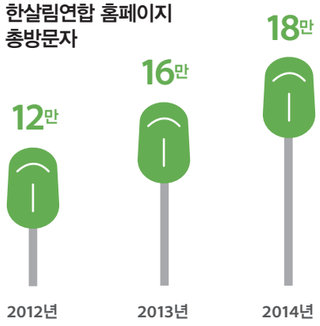
온라인, 모바일에서도 한살림

구글검색(2015년 1월 기준) 시 '한살림' 검색어가 포함된 웹문서는 39만건이며, 이 가운데 한살림사이트 웹문서는 18만건입니다. 또한 한살림과 유사한 사이트를 비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살림 웹사이트(이하 한살림)는 웹순위, 방문자, 체류시간 등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탈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한발 앞서 적용한 개방형사이트에 2014년부터 적용한 모바일 기기에 편리한 반응형사이트를 통해 조합원,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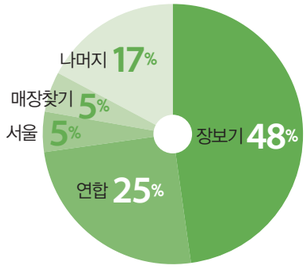
한살림요리 모바일 앱 사용자

37,393명
(2014년 12월 기준)

한살림연합 홈페이지 총방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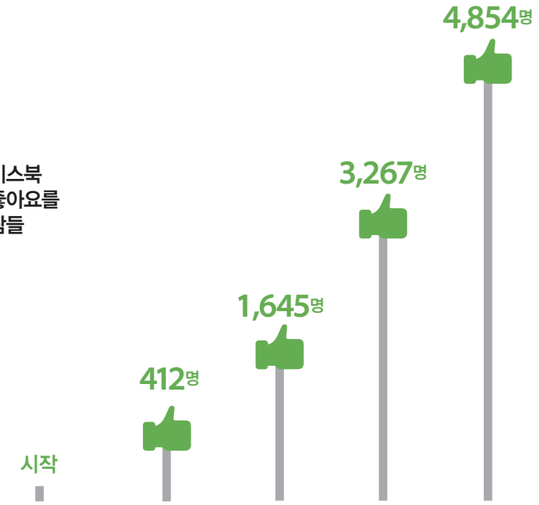


한살림사이트 방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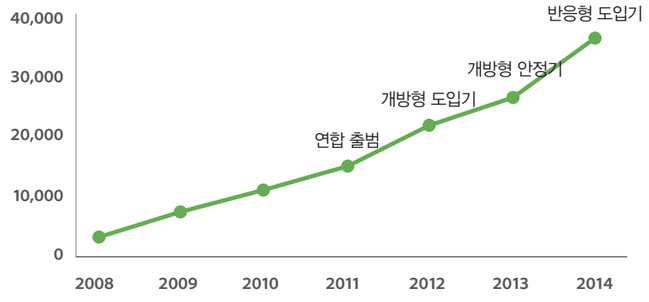


기타 – 요리사이트 및 나머지 회원생협사이트
(Similarweb에서 웹데이터 추출)

한살림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클릭한 사람들



한살림 웹콘텐츠 추이



2011년 연합 출범 이후 한살림 온라인 중기계획 1차 시작(검색최적화 사업)
2012년 한살림 개방형사이트 도입기
2013년 한살림 개방형사이트 안정기
2014년 한살림 반응형사이트 도입기 (모바일최적화 사업 시작)

미래 세대를 위한 나눔, 한살림 식생활교육센터 3년 연속 우수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선정

우리 아이들이 내가 먹는 음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배워나가도록, 올바른 식생활교육의
틀과 내용을 한살림이 앞장서 만들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센터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미래 세대의
밥상살림 교육에 나설 식생활교육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8개 지역 184명이 한살림이 진행한 식생활교육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했고, 한살림 식생활교육한마당을 통해
지역별 우수한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사회와 함께 하는 식생활교육

8개 지역 184명
식생활교육활동가양성

- 2014 식생활교육박람회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 **3년 연속 식생활교육우수기관 선정**
-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 **451회 8,675명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소비, 섭취까지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과 자연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는 식생활교육 및 녹색식생활운동 진행
- 양평군, 식생활교육과천네크워크사회적협동조합 위탁 교육과정 수행 **31명 수료**
- 어린이친환경요리교육 지도자 과정 **25명** 수료
- 식생활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8개 지역 184명** 수료
- 한살림식생활교육활동 한마당 개최 **9개 회원조직 55명** 참여
- 연구강사 코칭교육 **18명** 수료

언론에 비친 한살림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구입처로 한살림 소개
Mnet K-style TV – Organic market 2014. 4. 23

SBS CNBC | SBS 뉴스 | SBS 연예스포츠

산업/기업 | 한살림, 먹거리·환경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다

■ CEO 리포트

이번 주에 만나볼 국내 CEO는 한살림 연합의 이상국 상임대표이다. 한살림은 친환경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30여년전, 상류층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할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태운동으로까지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상국 대표로부터 한살림의 출범 배경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해 들어보자.

SBS CNBC 2014. 5. 9

한살림의 식생활교육 소개
소비자 TV– 밥상소믈리에Q 2014. 10. 25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맞춰 대안으로 한살림 소개
KBS1 TV – 시사시획 창 2014. 2. 18

"'생명 급살' 세월호, '생명 서살' 우리 밥상"

[박인규의 inter-view] ④ 한살림 이상국 상임대표

이명선 기자(정리) 2014.07.12 04:54:25

"세월호는 생명이 급살(急殺)한 경우지만, 밥상은 서살(徐殺) 현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간접 살인이죠."

세월호 침몰 하루 전, 아이와 마주한 밥상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4월 16일 오전 7시경 엄마가 보고 싶다며 살갑게 건넨 인사가 끝일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다. 부모 곁에서 잠시 떨어졌을 뿐인데, 열일곱 살 꽃다운 생명이 하루아침에 떨어졌다. 말 그대로 급살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내가 먹은 음식으로 자식이, 손자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이 같은 위기 의식은 먹을거리를 사서 밥상을 차리기까지 생활 양식에 변화를 불러왔다. 서살을 염려해서다.

30년 넘게 '생명 존중·인간 중심'을 전파해온 한살림 이상국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가 물적 가치를 떠나 생명 가치를 만드는 일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루 세 번 마주하게 되는 밥상에서부터 출발해 전체적인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살림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날 두 사람은 국내 최대 생활 협동조합과 국내 최초 언론 협동조합을 대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시대적 화두가 된 '생명 사상'을 이야기했다.

프레시안
2014. 7. 12

NAVER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FUN 쇼핑 NOW
여 "30일까지 협상없다"…야 "들으려고도 안해"
北 리수용 "유엔 총회서 윤병세 만나지 않을 것"
GOP 병사들 잡초제거·보수작업 안해도 된다
오늘 서울 도심서 세월호 대책위 등 대규모 집회..
인천AG 금·은·동메달 휩쓴 '사이클 철인' 나아름
실시간급상승 2 야생화 228
'쌀시장 개방반대' 퍼포먼
응급의료센터, 폭력 난무하는 '주폭 놀이터'로

한살림의 쌀 관세화 시장개방 반대 퍼포먼스
네이버(NAVER) 첫화면 등장

연합뉴스 '쌀시장 개방반대'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뜻으로 '쌀' 글자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4.9.27
seephoto@yna.co.kr

연합뉴스 2014. 9. 27

한살림, 국제유기농업상 금상 수상

생명살림 운동 성공적 실천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한살림)이 지난 20일 독일 레가우에서 개최된 국제유기농업상(One World Award)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공동 수상했다. 올해 4회째인 국제유기농업상 시상식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업조직연합회인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주관하고 유럽의 유기가공식품 기업인 라푼첼이 주최한다. 격년마다 세계 유기농업의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한살림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생명살림 운동을 성공적으로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도의 '빔박 두 콜렉티브'와 함께 금상을 수상했다. 레나테 퀴나스트 전 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한살림은 성공적으로 유기농 사업을 이끌어 내면서도 그 원칙을 잃지 않았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삶을 돌보는 점이 인상적이며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살림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 도시의 소비자가 모여 만든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이다. 1986년 강원 원주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박재일 전 회장이 농민들과 함께 서울 제기동에 쌀가게 '한살림농산'을 열어 무농약 쌀과 잡곡, 참기름, 유정란을 판 것이 모태가 됐다. 1989년 무위당 장일순, 김지하 시인 등이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면서 생명운동으로 확대됐다.

한살림에서는 수입 먹거리가 아닌 제철 먹거리를 고집하고 농약·화학비료·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농축산물을 취급하지 않는다. 가공식품은 국내산이면서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똥을 퇴비로 쓰는 지역생태 순환농업을 도입하고 토종종자 보존운동에도 나섰다. 한살림선언 원칙을 지키려는 농민들과 이들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 조합원이 있어 가능했다. 농민과 소비자 간에 신뢰가 굳건하다보니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는 농민 조합원들이 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는 소비자 조합원이 가격을 더 쳐주는 일도 가능했다.

이상국 한살림 대표는 "지속가능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활동을 더 속도감 있게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살림은 공동수상한 인도의 '빔박두 콜렉티브'와 상금 2만5000유로(약 3340만원)를 나누어 받았으며, 상금 전액을 인도에 유기농장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 수상
경향신문 2014. 9. 23

"생협에서도 햇반 만들면 어떨까요"

한살림, 쌀값 결정 조합원회의
쌀 소비 촉진 아이디어들 분출
4년째 가격 동결에 "고마워요"

"한살림도 햇반(즉석밥)을 만들면 어떨까요. 우리 쌀 소비도 하고 가정에서 밥하는 것에서도 해방되고."

지난 8일 오후 경기 안성 농협교육원에서 열린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의 '2015년산 쌀 생산 관련 회의'에 참여한 정선섭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 수도작분과 대표는 회의 말미에 '즉석밥 사업'을 제안했다. 2015년에 한살림 생산자 조합원들이 생산할 쌀의 총량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에서 생산자·소비자 대표들은 쌀 소비 촉진을 호소했다.

1989년부터 시작돼 올해 26회를 맞은 한살림 쌀 가격, 생산량 결정 회의에서는 이 생협의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들이 참석해 소비자들이 '2년 뒤 먹을 쌀값'을 미리 결정한다. 소비자 조합원의 수요를 예측해 '소비량'을 결정하고, 생산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시장가격이 아닌 '생산비'에 기반해 가격을 결정한다. 생산자들은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리며 쌀을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물가와 관계없이 약정된 가격에 유기농·무농약 쌀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올해 회의는 전국에서 190명가량의 조합원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한 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살림의 2015년산 쌀 생산량은 멥쌀 6만1000가마(1가마 80kg), 찹쌀 1만3000가마로 결정됐다. 각각 올해보다 13%, 11%가량 증량됐다. 한살림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을 기조로 하고 있는 만큼, 이 회의에서 생산자 조합원과 '약속'해 생산한 물량은 소비자 조합원들이 '책임 소비'해야 한다. 소비자 조합원들은 "열심히 소비를 촉진하겠다"면서도 어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많은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한살림서울 박혜숙 이사장은 "쌀 소비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가공용 쌀 소비를 늘리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이 한살림경북북부 농산물위원장은 "가족 구성원들이 세 끼 식사를 다 함께 먹어본 적이 1년 중 한 번 손에 꼽을까 말까 한다. 1년에 다섯 번 정도는 온 가족이 모여 세 끼 쌀밥 먹기를 제안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5년산 한살림 쌀 가격은 유기농 멥쌀 40kg 기준 8만6000원으로 2012년산부터 4년 연속 동결됐다. 생산비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게 주요 근거였다. 생산자들은 2014년산 쌀값이 수확기 산지 기준 6%가량 떨어질 전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동결이 곧 인상"이라며 "생산량을 늘려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김현향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장은 "농가의 주요 소

2015년산 쌀 생산관련 회의
한겨레신문 2014. 12. 10

한살림 국산콩 반값두부 탄생의 비밀

한겨레 | 작성자 김효진 기자

'원가가 하락하면 가격도 떨어져야 한다.' 당연해보이는 이 명제가 현실이 되는 일은 드물다. 지난해 말부터 '도미노 가격인상' 논란에 휩싸인 식품업체들은 '원재료값은 하락했다'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에 침묵했다. 기업의 가격 결정 과정은 '비밀'로 감춰져 있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가격 인상을 통해 초과 이윤을 챙기는 것 아닌지 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그러나 협동조합에서는 '원가와 가격의 연동'이 실현되고 있다. 지난 4월 한살림은 국산콩 두부 한모(420g) 가격을 2200원에서 1800원으로 인하했다. 시중 유명 브랜드 국산콩 두부 값의 절반 수준이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4. 10. 31

"농촌 – 도시 잇는 건강 오작교"

생산자–소비자 가교… 신뢰 쌓으니 생산자는 보람, 소비자는 안심

머니위크 2014. 11. 15

theguardian

Beyond capitalism: not-for-profit business ethos motivates sustainable behaviour

빅이슈(the Big Issue),
모질라(Mozila) 등
세계적 비영리 공익단체들과
함께 한국의 한살림을 소개
가디언(The Guardian, 영국)
2014. 10. 1

이 땅에 우리쌀 농사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한살림은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우리 농산물로 차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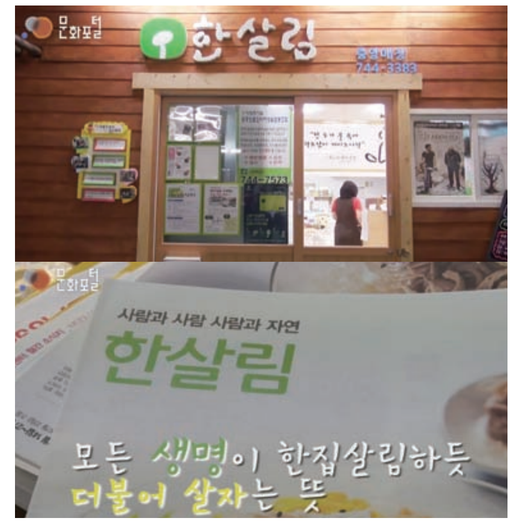
농업은 단순히 상품과 시장의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작물을 기르고 먹고 순환하는 과정 전체가 생명 활동의 연장이며 나라마다 자기 농업을 유지하는 일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한살림의 생각입니다. 우리 땅에서 쌀과 잡곡 농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쌀 / 우리밀 / 보리 / 토박이씨앗살림과 Non-GMO / 도시와 농촌이 함께 / 가장 안전한 먹을거리

쌀은 생명
아이들의 미래
우리쌀 지키기
한살림
5000인 선언

한살림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www.hansalim.or.kr | 1661-0800 | 02-6715-0800

쌀은 생명 아이들의 미래
우리쌀 지키기 한살림 5000인 선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2014. 10. 31



한살림과 무위당 장일순 선생 소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
–강원 느낌거리 2014. 8. 20

출판 간행물

2008년 창간된 계간지 《살림이야기》가 2014년 6월, 월간지로 재창간되었습니다.
《살림이야기》는 한살림 안팎의 더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도서 출판 한살림

살림이야기 재창간준비호 2014.5
도서출판한살림

살림이야기 재창간호 2014.6
도서출판한살림

살림이야기 26호 2014.7
도서출판한살림

살림이야기 27호 2014.8
도서출판한살림

살림이야기 28호 2014.9
도서출판한살림

살림이야기 29호 2014.10
도서출판한살림

살림이야기 30호 2014.11
도서출판한살림

살림이야기 31호 2014.12
도서출판한살림

살리는 사람 농부
한살림생산자 16명의 이야기

자본주의를 넘어
프라우트: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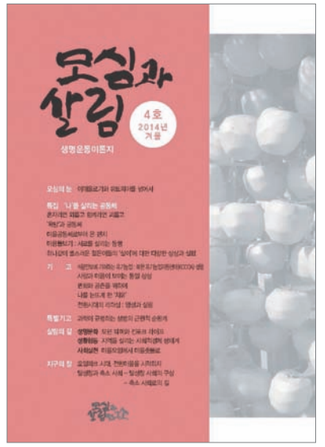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2014년 도서출판 한살림 발간 목록

- 살리는 사람 농부–한살림생산자 16명의 이야기 / 김성희 지음/류관희·장성백 사진/304면
- 자본주의를 넘어–프라우트: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영성
  다다 마헤슈와라난다 지음/다다 칫따란잔아난다 옮김/모심과살림연구소 기획/584면
-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서정록 지음/256면
- 2015 한살림 다이어리 제작/도서출판한살림/256쪽

모심과 살림 연구소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활양식의 창조'를 통한 한살림운동을 뒷받침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조합원과
생산자회원 대상 의식조사, 한살림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조사,
한살림의 기초조직 활성화 연구, 한살림과 청년세대의 연계방안 모색,
지역한살림운동사 등을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연 2회 동향분석 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과
생명운동 이론지 〈모심과 살림〉을 각각 발간하였으며,
모심과살림포럼, 생명사상세미나 및 생명협동운동 관련 단체 및
연구소들과의 교류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동학혁명 120주년과 무위당 20주기와
관련한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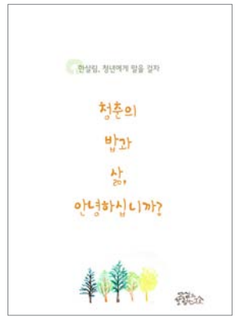


모심과 살림 4호 / 2014년 겨울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운동 이론지 『모심과 살림』(3호~4호)

3호(여름호)에서는 갑오동학혁명 120주년과
무위당 장일순 선생 20주기가 가진 전화의 시대에
주는 의미를 특집으로 다루었고,
4호(겨울호)에서는 공동체를 특집 주제로 삼아
개인들의 열망이 살아 있는 '나'를 살리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2014년 연구과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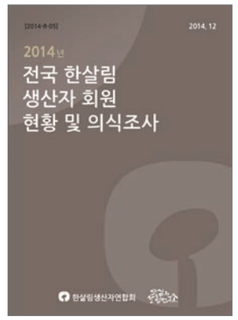


한살림, 청년에게 말을 걸자
청춘의 밥과 삶, 안녕하십니까?
모심과살림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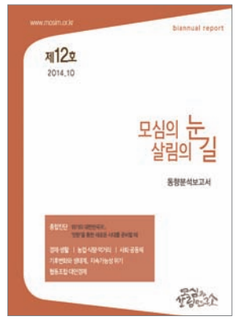
한살림의 사회적 경제 활동
사례별 특징과 과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 사람을 세우는 한살림 기초조직
한살림 기초조직 활성화 보고서
모심과살림연구소

2014년 전국 한살림
조합원 의식조사
한살림 연합 / 모심과살림연구소



2014년 전국 한살림 생산자 회원
현황 및 의식조사
한살림생산자연합회 / 모심과살림연구소



모심의 눈 살림의 길
동향분석보고서
모심과살림연구소

국내외 연대

한살림은 탈핵, GMO 반대, 세월호, 기후변화대응, 농축산 이주노동자 인권 등 생명 평화를 위한 사회 현안에 대한 연대 활동에 앞장서고 고통 받는 국내외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2014년 1월 16일에는 한살림연합, 서울, 경기남부, 성남용인, 생산자연합회에서 경상북도 밀양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밀양 주민에게 250w급 햇빛발전기 8기를 기증하고 노후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에 함께 참여 했습니다.
5월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살림 입장을 발표했으며,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GMO 농산물의 문제점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9월에는
회원생협 조합원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주,횡성,평택 등지에서 자생 GMO 작물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11월에는 빅애스크(Big Ask) 네트워크과 함께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고,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권리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12월에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공동선언 및 '행복한 인권밥상' 공동캠페인을 펼쳤습니다.

1월
밀양햇빛버스 및 송전탑 천막농성장에 250w급 햇빛발전기 8기 기증 (한살림연합, 서울, 경기남부, 성남용인, 생산자연합회)

3월
후쿠시마 3주기 탈핵행사 한살림 부스 운영 및 거리행진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5월
세월호 관련 서명운동 및 한살림입장 발표

6월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8월
수명끝난 노후원전 폐쇄운동 전국화를 위한 워크숍 진행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탈핵특위, 한살림성남용인)

9월
· CBD(COP-12) 총회 참여 및 '논생물 다양성과 습지로써 논의 중요성'을 주제로 부스 운영
· MOP-7 총회, 한일 자생 GMO작물 공동 조사 및 간담회 진행

10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 촉구 기자회견

11월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빅 애스크 네트워크)

12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공동선언 및 '행복한 인권밥상' 공동캠페인

한살림이 걸어온 길

1986~1994

1986

한살림 농산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박재일 전 회장이 농민들과 함께 무농약 쌀과 잡곡, 참기름, 유정란을 가지고 서울 제기동에 쌀가게 '한살림농산'을 열었다. 당시 우리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웠고, 도시 사람들의 밥상 역시 농약과 화학 비료, 저질 수입농산물 때문에 위태로웠다. 작은 쌀가게가 희망의 밥상을 위한 씨앗이 되었다.

1986

1988

협동조합 설립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해 초창기부터 협동조합을 조직운영의 기본 틀로 삼았다. 소비자들이 생산지를 찾아가 농민들과 가족 같은 정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한살림생산자협의회를 결성했다.

1989

1989

한살림선언

이때 시작된 단오잔치가 대보름잔치, 가을걷이 한마당 등으로 확산돼, 사라져 가는 농촌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한살림모임을 결성하고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면서 생명의 세계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살림선언은 평화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종교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청주에서 처음으로 지역 한살림이 설립된 이후, 경남·강릉·원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한살림 지역 조직으로 들어왔고 각 지역 한살림이 설립되었다.

1989

1989

우리밀살리기운동

경남 고성에서 우리밀 재배를 시작하며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밀의 토종 종자가 거의 사라졌던 상황이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밀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국 곳곳에서 우리밀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1993

흙살림연구소 창립

흙살림연구모임·흙살림연구소를 세웠다. 흙살림은 이후 토종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보급해 우리나라에 친환경농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94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창립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창립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친환경농업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안을 제시했다.

1995~2008

1995

환경상 수상

'소비자가 주는 좋은 상품상'을 수상했다. 이후 철탑산업훈장, 서울시 환경대상, 농림부 친환경농업대상 등 상훈이 이어졌고 한살림활동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1995

1997

북한동포, 이웃과 함께

일본 그린코프 생협과 함께 굶주린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민 지원 모금, 2006년에는 '우리생명쌀지킴이기금 나눔 운동' 등 국내외 구분 없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1999

1999

수돗물 불소화, GMO반대

'수돗물 불소화 반대 국민연대'를 결성해, 수돗물 불소화 반대 주민운동을 벌였다. 이후에도 한살림의 뜻과 지향에 따라 식품 안전,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 '학교급식 운동',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논살림 활동', '재사용 · 재활용 증진 활동',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2006

2002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설립

'모심과살림연구소'를 세워 한살림모임의 연구와 활동을 계승하고 생명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사업연합을 창립해 한살림 직거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한살림을 지원하고 있다.

2006

한살림 창립 스무 돌

창립 스무 돌을 맞아 기념 음반을 제작하고 토론회와 음악회, 기념 행사를 열었다. 또한 약 1억7천만 원의 '우리생명쌀지킴이기금'을 조성해 북한 고성지역의 탁아소와 남한의 각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의 공부방 등에 전달했다. '생명평화 환경농업 대축제'를 통해 시민들과 흥겨운 잔치를 가졌다.

2008

계간지 《살림이야기》

도서출판한살림을 설립하고, 계간지 《살림이야기》를 창간했다. 살림이야기를 통해 한살림 안팎의 더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살림이 걸어온 길 2009~2013

2009

20만 회원 시대

한살림 회원이 20만 세대를 넘어섰다. 경기도 여주·광명, 서울 용산 등에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했다. 한살림선언 선포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한살림 조합원은 2013년 말 현재 41만 세대가 되었다. 한살림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많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을 설립했다.

2009

2010

아이티, 파키스탄 지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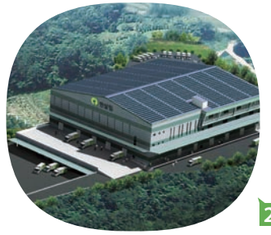
지진으로 신음하던 아이티를 위해 모금을 진행하고, 대홍수가 휩쓸고 간 파키스탄 농민들의 생산 기반 복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1천 개 아프리카 텃밭 만들기 지원, 한살림생산지 이상기후 피해 모금 등 국내외 농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한살림을 설립하고 이끌어 온 인농 박재일 선생이 별세했다.

2010

2011

한살림연합 창립

한살림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아우르는 대표조직인 한살림연합을 창립했다. 지진·해일 피해를 당한 일본 재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방사능 오염과 먹을거리 위기를 성찰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

2012

안성물류센터 기공식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물류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오포물류센터 대신 경기도 안성에 새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기공식을 거행했다.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을 창립하여 국내 보리생산 기반을 지키고, 국산사료자급률을 높이는 우리보리살리기운동을 시작하였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참여조합원들의 출자금 약 13억 원으로 최대 발전용량 약 500kW, 2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62만kWh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기후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힘을 합쳐 생산안정기금 조성을 시작하였고, 2012년 첫해 8억5천7백여 만 원이 조성되어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에게 1억1천7백여 만 원을 지원하였다. 한살림의 21번째 회원생협인 한살림경기서남부를 창립했다.

2013

한살림연합 2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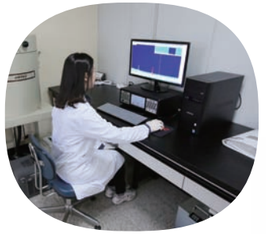
국산보리를 먹인 우리보리살림돼지 물품 공급을 시작하였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설립하였다.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에 참가하였고, 필리핀 기후재앙 피해자에게 성금을 전달하였다. GMO 완전표시제 입법화와 한중FTA 반대 서명운동, 송전탑 건설반대 밀양주민돕기 활동 등을 펼쳤다. 새 물류센터가 완공되어 안성물류센터 시대가 시작되었다.

2014

2014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 본격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의 돈독한 관계, 유기농업 발전,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헌과 전망 제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으로부터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4년 2월 안성물류센터 준공으로 하루 9,600병 가량 세척이 가능한 재사용병 세척시설과 440kW 발전용량의 햇빛발전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신재생공급인증서 REC 입찰에 낙찰되어 2026년까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토박이씨앗살림 생산기반 확대와 종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토박이씨앗살림운동'을 본격화 하고 우리보리살림협동조합 발아보리가공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안성지역 농협들과 함께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을 창립하여 두부 등 국산콩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공장 건축을 추진함으로써 국산콩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국산콩 자급기반을 확장했다. 국립한경대학교와 함께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방사성물질과 320종 농약성분 분석 등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2015년 3월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한살림,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 수상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일궈온 생명농업에
국제사회가 주목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농업을 지키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유기농업, 환경보호, 경제적 영향, 사회적 기여 등에 공헌이 큰 단체와 인물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살림은 2014년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 전액을 포함해 2천만 원을 인도 달리트(불가촉천민)들의 유기농 농사 지원을 위해 기증했습니다.

지역 한살림 및 매장 안내

우리 동네에도 한살림이 함께 합니다

전 화 주 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 터 넷 주 문 **공급일 3일 전 오후 9시까지**
장보기누리집 http://shop.hansalim.or.kr
우리동네한살림 http://store.hansalim.or.kr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손쉽게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서울
1588-3603
02)3498-3600

가락 404-4205
광나루 455-0500
금호 2281-1155
둔촌 471-7500
문래 2631-4200
방학 3491-9944
상계 951-5353
성산 374-7875
신정 2645-3388
쌍문 995-5883
역삼 508-8484
왕십리 2295-3500
전농 2244-8444
하계 971-5200
가양 3661-7400
고척 2685-1400
길음 942-9933
마포 713-0600
미아 989-9984
보라매 844-7200
상도 824-9200
송파 3432-9700
신천 423-0029
암사 442-7500
오목교 2653-7300
자양 453-5700
중계 932-4633
화곡 3663-8979
강일 427-8833
구의 456-0738
대치 569-8378
명일 428-0618
반포 592-6100
봉천 877-5999
상암 305-5900
신도림 2632-7500
신천역 413-2900
압구정 515-8427
이촌 796-3400
잠실 419-2271
청담 547-9100
홍제 379-0335
개포 578-9800
구파발 358-4700
돈암 923-9088
목동 2653-6026
방배 3471-0055
사당 593-1117
서초 3486-9640
신내 3422-5300
새반포 594-5500
여의도 783-3600
일원 445-7300
잠원 591-5050
평창 394-5151

한살림서울 소속 경기지역

구리 031)551-7733
부천 032)321-8356
장기 031)982-8833
호평 031)559-2900
구월(인천) 032)462-8400
소하 897-0071
철산 2685-1544
송도(인천) 032)851-4488
양주고읍 031)842-1199
청라 032)569-8989
의정부 031)853-2700
하남 031)795-6300

② 고양파주
031)913-8647

교하 957-6204
주엽 913-8646
산들 904-6204
운정 946-6209
덕양 938-0808
마두 932-6204
식사 962-6207
탄현 923-8646

③ 경기남부
031)383-1414

과천 02)502-4628
권선 224-3800
산본 396-0318
안산 405-6253
원문 02)3679-7007
장안 271-5362
군포 399-4600
비산 381-6253
시흥 432-7733
영통 203-2777
의왕내손 426-5100
평촌 382-3462

④ 성남용인
031)778-7778

구미 786-0610
서현 781-7737
수내 712-0744
동천 896-9277
신봉 261-9044
정자 718-4094
판교 702-3423
상현 896-8277
수지 263-7763
동백 287-4321
신갈 895-4456
야탑 701-4001
죽전보정 261-4844
동판교백현 8017-8520

⑤ 경기서남부
031)375-1420

동탄 8015-1725
오산 374-1720
향남 8059-3720
병점 234-1720
평택 655-1720

⑥ 여주이천광주
031)884-9098

송정 632-6799
이천 632-6732
양평 771-9048
여주 884-9122
광주 768-9096
퇴촌 761-0996

⑦ 원주
033)763-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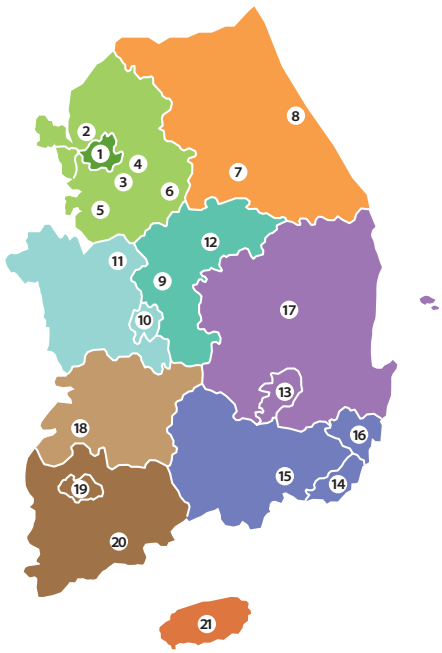
개운 763-0282
단계 745-5900
춘천 256-1278
구곡 765-8080
중앙 744-3383

⑧ 강원영동
033)645-3371

속초 632-3398
임당 642-0099
천곡 531-3232
효가 522-1190
솔올 644-1130
입암 651-0059
포남 652-1193

⑨ 청주
043)213-3150

개신 236-3150
금천 293-6089
복대 237-3150
오송 238-3150
괴산 833-0083
오창 241-3152
분평 295-0481
율량 212-1709



한살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 4층
☎ 02-6715-0800
www.hansalim.or.kr

⑩ 대전
042)484-1225

공주 041)881-1225
관평 934-1225
둔산탄방 485-1293
신성 864-1119
태평 535-1125
관저 545-1125
노은 477-1560
부여 041)833-1225
월평 484-1293

⑪ 천안아산
041)555-1720

당진 357-1727
쌍용 571-1724
아산 542-1726
두정 553-1710
아름 044)863-1720

⑫ 충주제천
043)855-2120

제천 653-1112
충주 848-1112

⑬ 대구
053)654-5979

범물 782-5600
시지신매 792-5633
앞산 621-5711

⑭ 부산
051)512-4337

구서 514-3720
해운대 583-3036

⑮ 경남
055)298-0527

거제 633-0887
반송 262-0524
양덕 298-6657
진주 743-1494
합포 245-0545
대방 261-0760
성원 283-3203
장유 314-5528
진해 547-3313

⑯ 울산
052)260-8485

옥동 260-8482
굴화 260-8492

⑰ 경북북부
054)635-0222

상주 534-8886
안동옥동 842-3331
영주 631-7774

⑱ 전북
063)535-4526

군산 471-4527
송천 277-4526
정읍 532-4526
서신 272-4526
익산 831-1254
평화 227-5370

⑲ 광주
062)430-3539

봉선 672-6285
북구 575-6500
상무 384-6285
수완 956-6285
풍암 652-6285

⑳ 전남남부
061)682-2355

목포 277-8555
여수 653-3621
하당 285-3625
순천 807-2200
여천 691-7820

㉑ 제주
064)713-5988

노형 712-5988
서귀포 동홍 733-5988
이도 757-5988